

〈일반논문〉

## 부여의 쇠퇴·멸망 과정과 王室 일족의 동향\*

이 승 호\*\*

## 〈목차〉

- I. 머리말
- II. 부여의 '西徙近燕'과 후기 왕성의 위치
- III. 4세기 후반 王室 일족의 동향과 王國의 종언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부여의 쇠퇴·멸망 과정과 4세기 후반 이후 부여 왕실 일족의 동향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특히 그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西徙近燕'의 의미를 추적하는 한편, 346년 前燕의 침공을 받고 항복한 이후 중원 지역으로 옮겨 간 부여 왕실 일족 및 부여계 인물들의 행적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285년 모용선비의 기습적인 침공에 나라가 일시 붕괴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던 부여는 그 이후로 쇠퇴일로로 역사를 걷게 된다. 330년대 무렵 부여는 건국의 땅이었던 吉林市 일대를 고구려에게 빼앗기고 서북쪽의 農安縣 부근으로 옮겨 갔다. 기록 상에 확인되는 '西徙近燕' 구절의 의미는 부여가 4세기 전반 고구려의 공세에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1083578).

\*\*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밀려 農安 일대로 중심지를 옮겼던 상황을 말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農安으로 옮겨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346년 前燕의 침공을 받으면서 부여는 前燕에 완전히 종속되었다.

이후로 부여 왕실 일족은 餘蔚을 위시로 하여 前燕과 前秦 및 後燕의 정계에서 활약하였음이 사료 상에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상을 통해 당시 중원 왕조의 영향력 아래에 놓인 채 그 미맥을 이어갔던 부여국의 존재도 추측할 수 있다. 또 後燕이 멸망하는 5세기 전반 무렵부터 부여는 다시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에 속박되어 5세기 말까지 근근이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세기 말 북방으로부터 남하하는 勿吉의 압박을 극복하지 못하고 494년 왕실이 고구려에 귀부함으로써 부여의 역사는 결국 종막을 맞이하게 된다.

□ 주제어

부여, 부여 멸망, 여율, 西徙近燕, 부여 후기 왕성, 부여 왕실

## I. 머리말

기원전 2세기 무렵 역사상에 등장하여 기원후 3세기까지 성세를 자랑했던 부여는 285년 慕容鮮卑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sup>1)</sup> 이후 부여는 西晉의 지원 속에 다시 나라를 재건하였지만, 이때의 충격을 회복하지 못한 채 점차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즉 『晉書』 이후로 부

1) 『晉書』 卷97, 列傳 67, 四夷 東夷 夫餘國條, “武帝時, 頻來朝貢, 至太康六年, 爲慕容廆所襲破, 其王依慮自殺, 子弟走保沃沮.” 한편, 부여의 쇠퇴 징조는 이미 3세기 초부터 감지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승호, 「3세기 挹婁의 이탈과 夫餘의 쇠퇴」, 『동국사학』 64, 2018을 참조 바람.

여의 역사는 더이상 중국 사서 열전에 실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서에서 부여의 국가적 사정을 파악할 만한 단편적인 기사마저도 찾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료의 부족 속에 285년 이후 부여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간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학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부여의 쇠퇴·멸망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열악한 사료적 환경 속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든 부여사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는 그 후기 역사에 대해 정리해볼 필요는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4세기 이후 부여의 역사를 살펴보되, 그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資治通鑑』 卷 97, 晉紀 19, 永和 2年 正月條에 보이는 '西徙近燕' 구절의 의미를 추적하는 한편, 346년 前燕의 침공 이후 중원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부여 왕실 및 부여계 인물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부여 후반기의 역사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부여의 쇠퇴·멸망 과정에 대한 기왕의 성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4세기 전반 어느 시점에 吉林으로부터 農安 부근으로 중심지를 옮긴 부여가 346년 前燕의 침략을 받아 복속되었고, 다시 5세기 무렵부터 고구려의 지배를 받으며 왕실의 존속만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었으며, 끝내 勿吉의 압박 속에 494년 그 국가적 운명을 다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2)</sup> 물론 부여

2) 노태돈, 「扶餘國의 境域과 그 變遷」, 『國史館論叢』 4, 1989(재수목: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522~533쪽); 박경철, 「扶餘史 展開에 關한 再認識 試論」, 『백산학보』 40, 1992, 58~62쪽; 「부여사의 전개와 지배구조」, 『한국사』 2, 한길사, 1994, 90~92쪽; 송호정, 「Ⅲ. 부여」,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97, 196~201쪽; 『처음 읽는 부여사』, 사계절, 2015, 93~97쪽. 한편 중국 학계에서는 4세기 이후 부여의 역사, 즉 부여의 쇠퇴와 멸망 과정에 대하여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전문으로 다룬 논문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부여 후기의 역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성과를 찾아보면, 趙紅梅, 『夫餘與玄菟郡關係研究』, 香港亞洲出版社, 2009, 156~163쪽에서 慕容鮮卑의 부여 공략 과정에 따른 부여 衰亡의 과정을 살펴본 바 있고, 楊軍, 『夫餘史研究』, 蘭州大學出版社, 2011, 155~160쪽에서도

후기 역사에 대한 이와 같은 대략의 이해에 필자 또한 큰 이견은 없다. 하지만 선행 연구를 통해 언급된 부여 후기의 역사, 즉 그 쇠퇴와 멸망의 과정은 전반적으로 개략적으로 접근되어 온 감이 있다. 따라서 그 역사 전개 과정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관련 사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다 구체적인 고찰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II. 부여의 ‘西徙近燕’과 후기 왕성의 위치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285년 모용선비의 공격에 나라가 일시 붕괴하였던 부여는 西胥 東夷校尉의 지원을 받아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다<sup>2)</sup>의 사료 (가) 참조]. 그러나 전쟁 과정에서 王都가 파괴되고 그곳에 거주하던 만여 명의 부여인이 모용선비에 포로로 끌려가면서<sup>3)</sup> 부여의 지배체제는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대 국가체제에서 왕도와 그 주민집단이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왕권이 일시 붕괴하고 왕도 내에 거주하던 지배층도 상당수 모용선비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를 중심으로 구축된 부여의 지배체제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왕권과 六畜官을 중심으로 결집된 중앙 권력에 근간하여 각 지방

---

부여 유민의 동향 및 渤海 扶餘府 문제와 함께 간략히 검토하고 있으며, 範恩實, 『夫餘興亡史』, 社會科學出版社, 2013, 226~242쪽에서도 ‘夫餘’·‘北夫餘’·‘東夫餘’ 문제와 함께 부여의 멸망 및 유민의 동향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중원왕조 중심의 시각을 배제하면, 부여 후기사에 대한 이해는 한국 학계와 대체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3) 『晉書』 卷108, 載記 8, 慕容廆, “又率衆東伐扶餘, 扶餘王依慮自殺, 虜夷其國城, 驅萬餘人而歸.”

의 諸加 세력을 포섭·통제하였던 부여 국가체제의 특징을 고려할 때,<sup>4)</sup> 이러한 중앙의 붕괴는 향후 국가 운영을 다시 이끌어가는 데에 있어 상당히 치명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즉 이때를 기점으로 부여의 國勢는 크게 기울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의 사료는 당시 그러한 부여의 사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료 (가)

[夫餘는] 武帝 때 자주 와서 朝貢하였는데, 太康 6년[A.D.285]에 이르러, 慕容廆에 의해 襲破되어, 그 왕 依慮는 자결하고, 자제는 沃沮로 달아나 보전하였다. 황제가 조를 내려 말하기를, “부여왕은 대대로 충효를 지켰는데, 흉악한 오랑캐에 의해 멸망하였으니, 매우 가엾게 생각한다. 이에 그 유족[遺類足]으로 復國하는 것을 마땅히 방책[方計]을 세워, 그로 하여금 [나라가] 존립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有司가 아뢰기를, “護東夷校尉 鮮于嬰이 부여를 구원하지 않아, 機略을 잃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조를 내려 [선우]영을 파면시키고 何龕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이듬해에 夫餘後王 依羅가 사자를 보내 何龕에게 이르러 따르는 무리[見人]를 모아서 이끌고 옛 나라[舊國]로 돌아가 [나라를] 회복하기를 거듭 청원하였다. [하]감은 전열을 세우고, 督郵 賈沈을 파견하여 병력으로 그들을 호송케 하였다. [慕容]廆 또한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가]침이 [모용외와] 더불어 싸워 그를 대패시키니, [모용]외의 무리는 물러갔고, [의]라는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 후에도 매번 [모용]외는 그 종족 사람들을 약탈하였고, 중국에 팔았다. 황제는 이를 가엾게 여기고, 다시 조를 내려 官物로 贖還시켰으며, 司州와 冀州에 명하여, 부여인 거래를 금하였다.<sup>5)</sup> (『晉

4) 이승호, 「부여의 국가구조와 四出道」, 『한국고대사연구』 96, 2019, 241~242쪽.

5) 『晉書』 卷97, 列傳 67, 四夷 東夷 夫餘國條, “武帝時, 頻來朝貢, 至太康六年, 爲慕容廆所襲破, 其王依慮自殺, 子弟走保沃沮. 帝爲下詔曰, 夫餘王世守忠孝, 爲惡虜所滅, 甚愍念之. 若其遺類足以復國者, 當爲之方計, 使得存立. 有司奏護東夷校尉鮮于嬰不救夫餘,

書』 卷97, 列傳 67, 四夷 東夷 夫餘國條)

위의 사료 (가)에서 보듯 285년 모용선비의 침략을 피해 북옥저 일대로 피신하였던 夫餘後王 依羅를 비롯한 일부 왕실 세력은 이듬해 東夷校尉 何龕이 파견한 督郵 賈沈이 이끄는 군대의 호위를 받아 간신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즉, 東夷校尉의 군사적 지원 없이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의 안전마저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 부여 왕실을 따르는 세력이 미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라를 되찾았다고 하지만 이미 왕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 시스템은 붕괴하였고, 그에 따라 국가 운영의 기반 자체를 상실한 상태였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겠다.

이후로도 모용선비는 국력이 쇠약해진 부여를 집요하게 괴롭혔다. 위의 사료 말미에는 당시 부여의 처참한 실상이 잘 나타나고 있다. 즉 부여 인이 매년 모용선비에게 약탈당하여 중원 지역에 팔려가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부여 왕권은 이렇다 할 대응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국세가 기울어 버린 것이다. 문제는 당시 부여를 위협하는 세력이 모용선비만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무렵 남쪽에는 당시 세력을 급격히 확장해가던 고구려가 있었고, 동쪽에서는 읍루가 팽창세를 이어가던 추세였다.<sup>6)</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여의 영향력 하에 있던 여러 부족 세력들 또한 연쇄적으로 이탈하여 고구려와 모용선비 밑으로 흡수되어 갔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잘 알려진 대로 부여는 전통적으로 중원왕조와의 연대를 통해 대외적인 안정을 추구하였다.<sup>7)</sup> 이러한 부여의 대외정책 기조는 3세기 후

---

失於機略。詔免嬰，以何龕代之。明年，夫餘後王依羅遣詣龕，求率見人還復舊國，仍請援。龕上列，遣督郵賈沈以兵送之。虜又要之於路，沈與戰，大敗之，虜衆退，羅得復國。爾後每爲虜掠其種人，賣於中國。帝愍之，又發詔以官物贖還，下司·冀二州，禁市夫餘之口。”

6) 이승호, 「3세기挹婁의 이탈과 夫餘의 쇠퇴」, 307~308쪽.

7) 이승호, 「夫餘 政治史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11~121쪽.

반까지 줄곧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료 (가)의 앞부분에 “武帝 때 자주 와서 朝貢하였다.”고 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 부여는 3세기 후반에 새로 건국된 西晉에도 자주 조공 하며 긴밀한 관계를 쌓아 나갔던 것이다.<sup>8)</sup> 그리고 이러한 양자의 교섭 상황은 실제 실물로 전하는 몇몇 인장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아래의 <도판 1> 참조).



<도판 1> 夫餘-西晉 관계 印章

출처: 羅福頤 主編·故宮博物院研究室 璽印組編, 『秦漢南北朝官印徵存』, 文物出版社, 1987. 도판에 제시된 「晉夫餘歸義王」金印의 경우는 중국의 한 경매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자료로서(<https://auction.artron.net/paimai-art001244031> 검색 일자: 2020.08.15) 유물의 진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해당 유물을 감정한 羅隨祖(故宮博物院 研究員)는 이를 西晉이 부여 측에 사여한 「歸義王」印으로 확정하고 있다. 인장 형태 및 印文 체계 등 기왕의 여러 관련 인장과 형식면에서 일치하고 있어 이는 眞品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이승호, 「3세기 후반 「晉高句麗率善」印과 高句麗의 對 西晉 關係」, 『한국고대사연구』 67, 2012, 315쪽).

하지만 3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줄곧 부여에게 우호적이었던 西晉에서 八王의 난(291~306)과 永嘉의 난(311, 313)이 연이어 터지면서 중원 전역이 큰 혼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요동에 대한 西晉 정권의

8) 사료 (가)에서의 「武帝時」를 後漢 光武帝 시기로 보는 의견도 있지만(王綿厚, 「東北古 代夫餘部の興衰及王城變遷」, 『遼海文物學刊』 1990-02), 이는 西晉의 창업주 武帝 司馬炎의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통제력도 점차 붕괴하기 시작하였다. 309년 요동에서는 幽州刺史 王浚과 갈등을 빚었던 東夷校尉 李臻이 遼東太守 龐本에 의해 주살되고, 龐本이 다시 신임 東夷校尉 封釋에게 피살되는 등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 311년 王浚은 병사한 東夷校尉 封釋을 대신해 자신의 장인인 崔慤를 평주자사·동이교위로 임명하였지만, 이미 요동에 대한 동이교위부의 통제력은 무력화된 상황이었다.<sup>9)</sup>

급기야 319년에는 동이교위 崔慤가 고구려와 鮮卑의 于文部·段部를 끌어들이어 당시 급성장하던 모용선비에 대한 합공을 시도하다가 도리어 于文部·段部가 모용선비에 의해 각개격파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에 崔慤는 모용선비의 반격을 피해 고구려로 망명하였다.<sup>10)</sup> 이로써 요동을 완전히 장악한 모용선비의 수장 慕容廆는 2년 뒤인 321년 東晉으로부터 使持節·都督幽州東夷諸軍事·車騎將軍·平州牧·遼東郡公에 제수되며,<sup>11)</sup> 중원왕조에 의해 정식으로 요동과 요서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게 된다. 이로써 부여는 더이상 중원왕조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이때 부여는 모용선비와 고구려 양대 세력 사이에 끼어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이후로 전개된 부여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련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다. 4세기에 접어들면서는 史書에서 부여의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국가적 위상이 미미하였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 단편적인 기록과 고구려 및 모용선비의 동향을 통해 이 시기 부여 왕실

9) 여호규,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36, 2000, 38~39쪽.

10) 이상의 상황에 대해서는 池培善, 『中世東北亞史研究 -慕容王國史-』, 일조각, 1986, 43~46쪽 참조.

11) 『晉書』 卷108, 載記 8, 慕容廆, “帝遣使者拜廆監平州諸軍事, 安北將軍, 平州刺史, 增邑二千戶. 尋加使持節, 都督幽州東夷諸軍事, 車騎將軍, 平州牧, 進封遼東郡公, 邑一萬戶, 常侍, 單于並如故. 丹書鐵券, 承制海東, 命備官司, 置平州守宰.”



이 처한 상황을 희미하게나마 추적해볼 수 있다.

사료 (나)

[永和 2년, 346] 봄 정월, …(중략)… 처음 夫餘는 鹿山에居하였는데, 百濟의 侵略을 받아 部落이 衰하고 흩어져 서쪽으로 燕 가까이 [나라] 옮겨가니, 이로써 방비[設備]하지 못했다. 燕王 皝이世子 儁에게 慕容軍, 慕容恪, 慕容根 3將軍과 1만 7천의 기병을 거느리고 부여를 습격하게 하였다. 儁은 가운데居하면서 지시를 내렸고, 군사의 일은 모두 恪에게 맡겼다. 마침내 夫餘를 함락하고 그 왕 玄 및 部落 5만여 구를 포로로 잡아 돌아왔다. 皝은 玄을 鎮軍將軍으로 삼고, 딸을 처로 삼게 하였다.<sup>12)</sup> (『資治通鑑』 卷97, 晉紀 19, 永和 2年 正月條)

사료 (나)의 기록을 보면 346년 당시 부여는 鹿山, 즉 부여의 왕성이 있던 오늘날 吉林市 일대를 ‘百濟’에게 빼앗기고, 前燕 가까이 나라를 옮긴 상태였다고 전한다. 346년 이전 어느 시기에 부여를 침략했을 ‘百濟’에 대해서는 高句麗 설<sup>13)</sup>이 주류를 점하는 가운데 百濟 설,<sup>14)</sup> 前燕 설,<sup>15)</sup> 勿吉·靺

12) 『資治通鑑』 卷97, 晉紀 19, 永和 2年 正月條, “(永和二年) 春正月 …(中略)… 初 夫餘居于鹿山, 爲百濟所侵, 部落衰散, 西徙近燕, 以不設備. 燕王皝遣世子儁帥慕容軍慕容恪慕容根三將軍, 萬七千騎襲夫餘. 儁居中指授. 軍事皆以任恪. 遂拔夫餘, 虜其王玄及部落五萬餘口而還. 皝以玄爲鎮軍將軍, 妻以女.”

13) 金毓黻, 『東北通史』 上編, 社會科學戰線雜誌社, 1980; 김육불 저·동북아역사재단 역, 『김육불의 東北通史』 上, 동북아역사재단, 2007, 378쪽; 李健才, 「夫餘의疆域和王城」, 『社會科學戰線』 1982-04, 171쪽; 김병룡, 「후부여의 형성과 그 역사적 변천」, 『조선고대 및 중세초기사 연구』, 백산자료원, 1992, 294쪽; 노태돈, 「夫餘國의 境域과 그 變遷」; 『고구려사 연구』, 522쪽; 李德山·樊凡, 『中國東北古民族發展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143쪽.

14) 鄭寅普, 『朝鮮史研究』 上, 서울신문사, 1947, 202~204쪽.

15) 李健才, 「三論北夫餘, 東夫餘即夫餘의問題」, 『社會科學戰線』 2000-06, 179쪽. 李健才는 여기서의 ‘百濟’에 대해 처음 ‘高句麗’의 잘못으로 보았으나(李健才, 「夫餘의疆域和王城」, 171쪽), 이후 자신의 학설을 수정하여 ‘前燕’의 오기로 보았다(李健

鞞 伯咄部 설<sup>16)</sup> 등 다양한 세력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高句麗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한다.

일단 백제가 그 북방의 고구려를 넘어 부여를 공격하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문면 그대로 볼 수는 없다. 또 만약 부여가 前燕의 공격을 받았던 것이라면, 그러한 공세에 밀려 이동한 지역이 전연과 가까운 곳일 리 없으므로 당시 부여를 공격한 세력이 전연은 아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물길로 보는 입장에서는 기록 상의 ‘百濟’를 鞞 伯咄部로 상정하는 의견이 많은데, 당시가 물길이나 말갈 백돌부가 등장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물길은 5세기 후반에 비로소 역사상에 등장하며,<sup>17)</sup> 말갈은 563년에 『北齊書』에 그 명칭이 처음 나타난다. 더구나 말갈 백돌부의 경우에는 『隋書』 단계에 가서야 말갈 7부 중 하나로 사서 상에 등장하므로, 여기서의 ‘百濟’를 물길이나 말갈 백돌부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346년 부여를 공격한 ‘百濟’는 고구려의 오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아래의 사료는 그러한 상황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

사료 (다)

… 河泊之孫 日月之子 鄒牟聖王 元出北夫餘 天下四方 知此國郡最聖 … (『모두루모지』 3~5행)

.....

才, 「三論北夫餘, 東夫餘即夫餘的問題」, 179쪽).

16) 孫進己·馮永謙 主編, 『東北歷史地理』 2, 黑龍江人民出版社, 1989, 89쪽; 王綿厚, 「東北古代夫餘部的興衰及王城變遷」; 이인철, 『고구려의 대외정복 연구』, 백산자료원, 2000, 232쪽; 梁玉多, 「簡析勿吉的對外擴張」, 『北方文物』, 2012-01, 48쪽.

17) 勿吉이 역사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시점은 北魏 延興 5년인 475년으로 이때 勿吉은 使臣 乙力支를 보내 北魏에 처음 조공하였다(김락기, 『고구려의 東北方 境域과 勿吉 鞞』, 경인문화사, 2013, 37쪽).

… 慕容鮮卑 □□使人□知 河泊之孫 日月之子 所生之地來□ 北夫餘大兄冉牟  
□□□公義 … (『모두루묘지』 23~26행)

……………  
… 祖父□□大兄慈□大兄□□□世遭官恩恩□祖之 □道城民谷民并領 前王□  
育如此 遷至國罌上大開土地好太聖王緣祖父□□恩教奴客牟頭婁□□牟教  
遣令北夫餘守事 … (『모두루묘지』 40~47행)

위의 「모두루묘지」 23행부터 26행까지의 내용은 중간중간 판독이 어려운 글자가 있어 문맥을 완벽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모용선비가 ‘하백의 손자이자 일월의 아드님께서 태어나신 땅(河泊之孫 日月之子 所生之地)’으로 들어오니 北夫餘 大兄 冉牟가 이를 격퇴하였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이해된다.<sup>18)</sup> 또 묘지의 3~5행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河泊之孫 日月之子 所生之地”는 곧 鄒牟聖王이 태어난 곳으로 북부여 일대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는 모용선비의 군대가 오늘날 吉林市 일대로 침공해 왔는데, 이를 고구려 大兄 冉牟의 활약으로 막아내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의 사건은 곧 346년에 부여를 함락시킨 前燕의 군대가 계속 동진하여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吉林市 일대를 침공해 왔음을 말해준다.<sup>19)</sup> 당시 고구려와 前燕은 요동 일대를 두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다. 346년 부여를 공격하기 바로 전해인 345년에도 前燕은 慕容恪을 보내 고구려 南蘇城을 공격하여 주둔군을 두고 돌아갔다고 한다.<sup>20)</sup> 이는 이듬해 전개될 부여 침공에 앞서 전략적 교두보를 다지는 한편, 前燕의 부여 침공

18) 武田幸男, 「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權」, 『朝鮮學報』 99·100, 1971;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1989, 332~335쪽.

19) 武田幸男, 「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權」; 『高句麗史と東アジア』, 332~335쪽.

20) 『資治通鑑』 卷97, 晉紀 19, 永和 元年 10月條, “冬, 十月, 燕王皝使慕容恪攻高句麗, 拔南蘇, 置戍而還.”

에 고구려의 개입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의 사료 (나) 기록을 보면 346년 전연의 군사 작전 또한慕容恪의 지휘로 전개되었다고 하는데,慕容恪은 바로 이南蘇城을 교두보로 삼아 부여로 진격하였고, 부여를 함락시킨 뒤 吉林市 일대에까지 거둬들인 것으로 보인다.<sup>21)</sup>

이상을 통해 볼 때, 346년 시점에는 부여의 본래 중심지였던 吉林市 일대가 이미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346년 이전 어느 시점에 고구려가 부여 왕성이 있던 길림시 지역을 장악했다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시점은 언제였을까. 이에 대해 고구려가 길림시 일대로 진출한 시기를 대략 330년대 중반 무렵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즉 333~336년 前燕에서 대규모 내전이 발발하였을 때, 고구려가 이틈을 타 부여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sup>22)</sup> 당시 부여와 고구려·전연을 둘러싼 국제정세를 놓고 보았을 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 생각된다.

즉 고구려는 330년대 중반 무렵 길림시 일대를 장악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고구려는 요동 지역과 옛 부여 故地를 두고 前燕과 342년·345년·346년 세 차례에 걸쳐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342년의 전쟁에서는 왕도가 함락되는 큰 타격을 입었고 345년 전투에서도 南蘇城이 함락되는 등 어려운 국면을 이어갔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346년 전쟁에서는 牟豆婁의 선조 冉牟의 활약에 힘입어 吉林市 일대에 대한 방어에 성공하고 옛 부여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21) 武田幸男, 「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權」; 『高句麗史と東アジア』, 333~334쪽 및 345~346쪽; 여호규,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47~50쪽.

22) 여호규,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 『한국사연구』 91, 1995, 20쪽;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46~52쪽.

그렇다면 330년대 중반 무렵 고구려의 공세에 밀려 부여가 “西徙近燕”한 곳은 어디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두 사료는 吉林市 일대를 고구려에게 빼앗긴 이후 “西徙近燕”한 부여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약간의 단서를 제공한다.

사료 (라)-①

夫餘는 長城의 북쪽에 있으며, 玄菟에서 천 리 떨어져 있다. 남쪽으로 高句驪와 동쪽으로 挹婁와 서쪽으로 鮮卑와 접해 있으며, 북쪽에는 弱水가 있다. 사방이 2천 리 정도이며, 戶는 8만이다.<sup>23)</sup>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夫餘條)

사료 (라)-②

夫餘國은 玄菟[郡] 북쪽 천여 리에 있는데, 남쪽은 鮮卑와 접해 있고, 북쪽에는 弱水가 있다. 땅은 사방 2천 리이고, 戶는 8만이다.<sup>24)</sup> (『晉書』 卷97, 列傳 67, 四夷 東夷 夫餘國條)

우선 사료 (라)-①은 3세기 중반 무렵 吉林市를 중심으로 번성하였던 시기 부여의 위치에 대해 설명한 『三國志』 기술인데, 동쪽으로는 挹婁, 서쪽으로는 鮮卑, 남쪽으로는 高句驪와 경계를 맞대고 있으며 그 북쪽에는 弱水가 있었다고 전한다. 반면 그 뒤 시기 상황을 전하는 사료 (라)-② 『晉書』의 기술에서는 부여 북쪽에 弱水가 있다는 부분만 일치할 뿐, 부여의 주변 세력으로는 남쪽으로 (慕容)鮮卑와 접한다는 언급만 보인다.

특히 사료 (라)-②에서는 당시 부여의 동쪽과 서쪽에 위치했던 세력으

23)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夫餘條, “夫餘在長城之北, 去玄菟千里, 南與高句驪, 東與挹婁, 西與鮮卑接, 北有弱水. 方可二千里, 戶八萬.”

24) 『晉書』 卷97, 列傳 67, 四夷 東夷 夫餘國, “夫餘國在玄菟北千餘里, 南接鮮卑, 北有弱水. 地方二千里, 戶八萬.”

대한 기술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당시 부여의 서쪽으로부터 남쪽에 이르는 지역은 모두 선비 혹은 모용선비의 세력권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미 사료(라)-②에 부여가 남쪽으로 선비와 접해 있다는 기술이 있으므로 서술상 서쪽 경계와 관련하여서는 언급을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부여의 동쪽에 대한 기술이 없다는 점에는 좀 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기록 상의 누락이라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만약 『잡서』 四夷列傳 夫餘條의 해당 기사가 고구려로부터 길림시 일대를 빼앗기고 “西徙近燕”한 이후 부여의 상황이 반영된 기록이라면, 부여의 동쪽은 당연 고구려가 위치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지적된 바 있듯이 『잡서』 四夷列傳에는 고구려전이 빠져 있고 여타 조공기사마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잡서』 편찬 당시인 당태종 시대에 당과 고구려가 대립하던 국제적 상황이 고구려 관련 서술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sup>25)</sup>

그렇다면 당시 부여의 주변 세력에 대한 기술에서 고구려의 존재가 누락된 것도 『잡서』 四夷列傳의 사료적 특성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즉 당시 부여의 동쪽에는 고구려가 위치해 있었지만, 『잡서』 四夷列傳 편찬 시 고구려 관련 기사에 대한 의도적 누락에 의해 부여의 동쪽 지역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았던 것이다.<sup>26)</sup> 이를 통해 『잡서』 四夷列傳에 서술된 부여의 위치는 길림시 일대를 고구려로부터 빼앗기고 “西徙近燕”한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는 기록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여가 “西徙近燕”한 이후 거점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에 의

25) 윤용구, 「3세기 이전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한국고대사연구』 14, 1998, 154~156쪽.

26) 『잡서』 四夷列傳의 肅慎氏 열전에서 肅慎의 위치를 서술하는 대목에서도 그 서쪽 혹은 서남쪽에 위치하였을 고구려의 존재가 찾아지지 않는다. 『잡서』 卷97, 列傳 67, 四夷 東夷 肅慎氏, “肅慎氏一名挹婁, 在不咸山北, 去夫餘可六十日行. 東濱大海, 西接寇漫汗國, 北極弱水.” 역시 여기서도 『잡서』의 찬자가 高句麗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대체로 오늘날 길림시 서쪽 방면으로 長春市 북쪽 伊通河 좌안에 위치한 吉林省 農安縣 부근에 비정하는 의견<sup>27)</sup>이 주류를 점하는 가운데, 遼寧省 昌圖縣 四面城,<sup>28)</sup> 吉林省 四平市 一面城,<sup>29)</sup> 西豐縣 城子山山城,<sup>30)</sup> 吉林省 柳河縣 羅通山城,<sup>31)</sup> 吉林省 遼源市 龍首山山城<sup>32)</sup>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부여의 후기 왕성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가지각색의 학설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는 바꾸어 말해 부여 후기 왕성으로 비정할 만한 뚜렷한 고고학적 근거가 아직까지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처럼 신뢰할만한 고고학적 정보를 찾기 어렵다면, 오히려 문헌 고증 성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여러 문헌에 대한 고증을 통해 부여 후기 왕성의 위치가 오늘날 吉林省 農安縣 일대 일 것이라는 주장이 일찍부터 수 차례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문헌 고증 상으로는 지금의 農安縣 일대, 구체적으로 農安縣 서남쪽 부근에 부여의 후기 중심지가 자리하였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선행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논증되었듯이 후기 부여의 중심지는 고구려 시대에는 扶餘城, 발해 시대에는 扶餘府가 두어진 곳이자 『遼史』 지리지에서 龍州 黃龍府(975년 일시 폐해지기 이전의 龍州 黃龍府)로

27) 李健才, 「夫餘의疆域和王城」, 172쪽; 武國勳, 「夫餘王城新考 -前期夫餘王城的發現-」, 『黑龍江文物叢刊』 1983-04, 38쪽; 孫正甲, 「夫餘原流辯析」, 『學習與探索』 1984-06, 136~143쪽; 노태돈, 「扶餘國의 境域과 그 變遷」; 『고구려사 연구』, 496~500쪽.

28) 金毓黻, 『東北通史』 上編, 171쪽; 김육불 저·동북아역사재단 역, 『김육불의 東北通史』 上, 379쪽.

29) 譚其驥 主編, 『中國歷史地圖集』(釋文彙編 東北卷),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88, 32쪽.

30) 王綿厚, 「東北古代夫餘部の興衰及王城變遷」; 周向永, 「西豐城子山山城始建年代再考」, 『東北史地』 2009-02.

31) 王綿厚,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2002, 214~215쪽.

32) 李鍾洙, 「夫餘文化研究」, 吉林大學文學院 博士學位論文, 2004, 143쪽; 張福有·孫仁傑·遲勇, 「夫餘後期王城考兼說黃龍府」, 『東北史地』 2011-02, 11~23쪽; 張福有, 「夫餘後期王城在遼源」, 『東北史地』 2015-06.

기재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이곳은 金代의 隆安府(隆州), 즉 오늘날 吉林省 農安縣 서남쪽 부근에 해당한다. 바로 이 '隆安'의 음이 전와된 것이 지금의 '農安'이기 때문이다.<sup>33)</sup>

한편, 고구려 후기의 扶餘城은 631년에 고구려가 축조한 千里長城의 시작점이기도 하다.<sup>34)</sup>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중국 학계에서는 李健才·王建群 등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農安縣 남쪽 경계로부터 서남쪽으로 지금의 公主嶺市 - 梨樹縣 일대까지 이어져 있는 邊崗 유적에 주목하고, 이것을 기록에 보이는 고구려 장성 유적의 일부로 파악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고구려의 扶餘城 또한 農安縣 일대에 위치하였던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였다.<sup>35)</sup> 이후 農安縣의 龍王鄉·三崗鄉·前崗鄉 등지에서도 邊崗 유적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면서 이러한 견해를 힘이 실렸다. 田中俊明도 지금의 農安縣으로부터 營口市에 이르는 고구려 장성의 존재를 긍정하고 農安 일대에 고구려 扶餘城이 있었다고 보았다. 다만, 田中俊明은 부여와 고구려 시대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 農安古城을 고구려 말기의 北扶餘城州(助利非西)의 중심 거점, 즉 北扶餘城이라고 보는 데에는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북부여'라는 전통적인 호칭을 옮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고구려의 '北扶餘城'은 본래의 북부여, 즉 吉林市 일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36)</sup>

물론 근래에는 遼東 일대에 산재한 邊崗 유적들을 연결하여 고구려 천

33) 노태돈, 「扶餘國의 境域과 그 變遷」; 『고구려사 연구』, 496~500쪽; 방학봉, 『발해 경제 및 주요 교통로 연구』, 신성출판사, 2005, 322~334쪽.

34) 『舊唐書』 卷199下, 東夷 高麗傳, “(貞觀)五年, 詔遣廣州都督府司馬長孫師, 往收瘞隋時戰士骸骨, 毀高麗所立京觀. 建武懼伐其國, 乃築長城, 東北自扶餘城, 西南至海, 千有餘里.”

35) 李健才, 「東北地區中部的邊崗和延邊長城」, 『遼海文物學刊』 1987-01, 102~105쪽; 王建群, 「高句麗千里長城」, 『博物館研究』 1987-03, 103쪽.

36) 東潮·田中俊明, 『高句麗の歴史と遺跡』, 中央公論社, 1995, 378~380쪽.



리장성으로 파악하는 데에 회의적인 견해도 많다.<sup>37)</sup> 그러나 최근 연구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문헌 기록에 분명하게 '장성'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가볍게 지나칠 수는 없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기왕의 여러 연구에서처럼 農安縣 부근으로부터 營口市까지, 즉 扶餘城으로부터 발해만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으로 구축된 하나의 방어선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sup>38)</sup> 그렇다면 역시 부여의 후기 왕성의 위치도 農安縣 부근에서 찾아야 함이 옳다. 무엇보다도 앞서 지적한 대로 오늘날의 吉林省 農安縣 일대가 金代의 隆安府(隆州)였고, 다시 이곳은 遼代의 (原)龍州 黃龍府였으며 발해 시대에는 扶餘府이자 고구려 후기의 扶餘城이었다는 문헌 연구에 기초한 고증을 흔들 수 없다면, 현재로서는 부여 후기 왕성은 農安縣 서남쪽 부근에 위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부여 후기 왕성이 오늘날 農安縣 일대라는 입장에서 몇 가지 더 고려해볼 부분을 지적해보면, 먼저 5세기 무렵 吉林市 일대가 당시 고구려의 북방 최전선이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魏書』에서는 당시 고구려의 영역이 북쪽으로 舊夫餘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이는 오늘날의 吉林市 일대를 말한다. 한편, 494년에 부여는 勿吉의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왕실

37)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성제, 「高句麗 千里長城에 대한 기초적 검토 -장성의 형태와 성격 논의를 중심으로-」, 『영남학』 25, 2014를 참조.

38) 정원철, 『고구려 산성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7, 462~470쪽 참조. 한편, 여기서 정원철은 천리장성의 동북 기점을 德惠市 松花江鎮 老邊崗屯 일대로 파악하고 이로부터 여러 邊崗 유적이 宋遼 평원을 가로질러 營口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방어선 바깥에 위치한 農安 지역을 扶餘城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천리장성 축조 당시 부여 지역 고구려의 통치 중심이었던 '扶餘城'은 吉林市的 龍潭山城으로 비정하고 있다. 즉 부여 후기 왕성으로서 農安을 지목하면서도 부여가 고구려에 항복할 당시는 물론 고구려 멸망 때까지도 부여 지역의 통치 중심은 吉林市 일대였을 것으로 보고, 천리장성의 시작점을 扶餘城으로 기술하고 있는 『舊唐書』 高麗傳 기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부여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구려가 점유하고 있던 原부여 지역의 중심지라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였다(정원철, 『고구려 산성 연구』, 466~469쪽).

이 나라를 들어 고구려로 귀부하게 되는데, 만약 이때 부여의 중심지가 지금의 長春-農安 일대보다도 훨씬 더 남쪽의 어느 지역이었다고 본다면 이러한 부여의 투항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勿吉은 吉林市와 가까운 長春-農安 일대를 우회하여 그보다도 훨씬 더 남쪽에 위치해 있는 昌圖, 四平 혹은 西豊, 遼源, 柳河 일대의 부여를 압박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물길이 동북방으로부터 송화강 유역을 점진적으로 잠식해나가면서 부여를 압박하였음을 고려할 때, 당시 물길의 활동 범위가 고구려의 최북방 경계였던 吉林·長春 일대를 넘어 그 이남 지역까지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하나 유의되는 부분은 부여가 494년 멸망을 맞이하기 전까지 고구려에 황금을 공물로 바치면서 그 영향력 아래에서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였다는 점이다.<sup>39)</sup> 오늘날 吉林省 일대의 주요 금광 분포지는 長春市를 중심으로 그 북쪽의 九台區, 남쪽의 伊通縣과 吉林市 남쪽의 永吉縣, 樺甸市, 磐石市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sup>40)</sup> 즉 이들 지역은 모두 오늘날 吉林市와 長春市 주변 지역으로 당시 이곳에서 산출된 황금이 고구려로 들어갔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당시 고구려에 황금을 제공한 후기 부여의 중심지도 자연 吉林市와 長春市 일대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때 吉林市가 고구려 영역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부여의 중심지는 長春市 부근, 즉 그 북쪽 農安縣 일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요컨대, 이상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도 부여의 후기 중심지는 農安縣 부근으로 비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39) 『魏書』卷100, 列傳 88, 高句麗條, “正始中, 世宗於東堂引見其使芮悉弗, 悉弗進曰, 高麗係誠天極, 累葉純誠, 地產土毛, 無愆王貢, 但黃金出自夫餘, 珂則涉羅所產, 今夫餘爲勿吉所逐, 涉羅爲百濟所并, 國王臣雲惟繼絕之義, 悉遷于境內, 二品所以不登王府, 實兩賊是爲.”

40) 梁玉多, 「簡析勿吉的對外擴張」, 48쪽.

살펴본 바, 고구려의 공세에 밀려 부여가 “西徙近燕”한 곳은 부여 西方道の 주요 거점으로도 지적되고 있는<sup>41)</sup> 農安縣 일대로 보인다. 전술하였듯이 이곳은 遼代에 (原)龍州 黃龍府가 있었던 곳으로 渤海 시대의 扶餘府, 고구려 후기 扶餘城이 위치해 있던 곳이다.<sup>42)</sup> 물론 현재 農安縣 일대에는 부여의 왕성으로 볼만한 유적이 없다는 비판이 많다.<sup>43)</sup> 하지만 앞서 사료(가)에서 보았듯 당시 고구려의 침략을 받은 부여는 ‘部落이 衰하고 흩어져’ 서쪽으로 燕 가까이 옮겨갔으나 왕도에 걸맞은 시설들을 제대로 ‘갖추지(設備) 못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이곳에서 부여의 대규모 성터나 거점 유적지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이처럼 330년대에 전개된 고구려의 공세에 500여 년을 이어오던 왕도를 빼앗기고 農安縣 일대로 옮겨간 부여는 다시 346년에 前燕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앞서 사료(가)에서 보듯 이미 국세가 기울어버린 부여는 고구려에 의해 왕도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부여 세력권 내 여러 部落도 쇠잔하여 흩어진 상태였으며 새로 옮겨간 왕도는 충분한 방어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慕容儁과 前燕의 걸출한 무장 慕容恪이 이끄는 1만 7천의 대군을 맞아 불가항력으로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때 夫餘王 玄과 5만여 명의 부여인이 前燕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왕국은 완전히 붕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前燕의 慕容皝은 포로로 잡아 온 夫餘王 玄을 자신의 딸과 혼인시킴으로써 부여를 철저히 종속시키고자 하였다.

41) 이승호, 「부여의 국가구조와 四出道」, 232~233쪽.

42) 노태돈, 「扶餘國의 境域과 그 變遷」; 『고구려사 연구』, 496~500쪽.

43) 현재 農安縣 일대에서 부여 왕성에 비정할 만한 곳은 農安古城 뿐이며, 따라서 많은 연구자가 부여 후기 왕성으로 이곳을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발해 이전 시기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王綿厚, 「東北古代夫餘部の 興衰及王城變遷」).

### III. 4세기 후반 王室 일족의 동향과 王國의 종언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여는 330년대에 고구려의 공격에 王都가 있던 吉林市 일대를 빼앗기고 農安縣 부근으로 옮겨갔다가 이후 346년에 다시 前燕의 공격을 받으며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이 전쟁으로 왕과 부여인 5만여 명이 前燕에 포로로 끌려갔고, 부여왕 玄은 慕容皝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그 왕실은 전연에 철저히 종속되었다.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이때 부여의 역사가 종막을 고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44)</sup> 그러나 뒤에서 검토하겠지만 부여는 5세기 말까지도 고구려의 부용국으로 존속하였음이 사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부여가 모용선비의 공격에 무너진 4세기 중반 무렵부터 고구려의 부용국으로 전락하기 이전까지 부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명맥을 이어갔을까. 아래에서 검토될 사료들은 4세기 무렵 중원에서 활동한 부여계 인물들의 기록을 모아놓은 것인데,<sup>45)</sup> 이를 통해 4세기 중반 이후 부여 왕실의 동향을 흐릿하게나마 추적해볼 수 있다.

사료 (마)

[370년 11월] 戊寅[7일], 燕 散騎侍郎 餘蔚이 扶餘와 高句麗 및 上黨의 質子 5백 여인을 이끌고, 밤에 鄴의 北門을 열어 秦兵을 받아들이니, 燕主 暉가 上庸 王 評·樂安王 臧·定讓王 淵·左衛將軍 孟高·殿中將軍 艾郎 등과 더불어 龍城

44) 李丙燾, 『譯註 三國史記(개정판)』 上, 을유문화사, 1994, 435쪽, 각주 4번.

45) 4세기 무렵 중원에서 활동한 부여계 인물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에서 자세히 검토가 된 바 있어 참고가 된다(여호규, 「百濟의 遼西進出說 再檢討」, 『진단학보』 91, 2001 ; 이정빈, 「모용선비 전연(前燕)의 부여·고구려 질자(質子)」, 『동북아역사논총』 57, 2017).

으로 달아났다.<sup>46)</sup> (『資治通鑑』 卷102, 晉紀 24, 太和 5年 11月條)

먼저 위의 사료는 370년 당시 前燕의 수도 鄴城에서 質子의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었던 부여 왕족 餘蔚에 대한 기록이다. 당시 餘蔚은 前燕에서 散騎侍郎의 관직에 있었다고 전하는데, 胡三省은 그에 대해 같은 사료의 주석에서 “餘蔚은 扶餘의 王子인데, 그런 연유로 은밀히 여러 質子를 거느리고 문을 열어 秦兵을 받아들인 것이다(餘蔚, 扶餘王子, 故陰率諸質子開門以納秦兵).”라고 하여, 그가 부여의 왕자였다고 적고 있다. 이로 보아 餘蔚은 346년 前燕의 침공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부여 왕족으로 추정되는데, 기록에서 그를 ‘質子’라고 한 대목은 前燕의 영향력 하에 종속되어 있던 부여 왕실의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기록에서처럼 餘蔚은 370년 11월 前秦의 군대가 前燕의 수도 鄴城에 당도하자, 扶餘와 高句麗 및 上黨의 質子 5백 여인을 이끌고, 밤에 성문을 열어 前秦의 군대를 불러들였다고 한다.

곧 당시 鄴城에는 餘蔚을 비롯한 부여 質子와 더불어 高句麗와 上黨의 質子가 있었다. 여기서 高句麗 質子의 경우 342년 전연의 고구려 침공 시 王母·王妃와 함께 포로로 끌려온 이들 중 일부 혹은 그 후예들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존재로 인해 고구려는 前燕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보다는 前燕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으며 수세적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 上黨 質子의 경우에도 前燕의 세력 하에 편입되었지만 언제든 이탈의 가능성이 상존하던 上黨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前燕이 上黨의 유력자 제들을 질자로 삼아 鄴城에 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47)</sup>

46) 『資治通鑑』 卷102, 晉紀 24, 太和 5年 11月條, “戊寅, 燕散騎侍郎餘蔚帥扶餘, 高句麗及上黨質子五百餘人, 夜, 開鄴北門納秦兵, 燕主暉與上庸王評, 樂安王臧, 定襄王淵, 左衛將軍孟高, 殿中將軍艾朗等奔龍城. 辛巳, 秦王堅入鄴宮.”

47) 이정빈, 「모용선비 전연(前燕)의 부여 · 고구려 질자(質子)」, 81~82쪽.

그렇다면 당시 前燕이 餘蔚을 비롯한 부여 質子들을 鄴城에 두었던 것도 또한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위치해 있던 부여 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370년 무렵 ‘質子’를 매개로 前燕의 영향력 하에 종속되어 있던 부여 왕실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게 된다. 아마도 당시 부여 왕실은 오늘날 農安縣 일대에서 국가의 명맥을 이어나갔지만, 前燕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속박된 상태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위의 사료에서 주목되는 것은 당시 散騎侍郎이라는 여울의 관직과 鄴城의 質子 집단에서 그가 발휘한 영향력이다. 당시 여울은 鄴城에 체류하던 부여와 高句麗 및 上黨의 質子 5백 여인을 거느리고 前秦의 성 공격에 협조했다고 한다.<sup>48)</sup> 당시 鄴城의 유민 사회에서 여울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餘蔚의 사회적 위치와 영향력은 그의 개인 능력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와 함께 夫餘와 前燕 간의 관계 및 夫餘 王子라는 그의 신분적 배경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즉 이를 통해 당시 前燕에 종속된 상태에서도 부여는 그 국가적 위상을 일정 정도 유지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사료 (바)-①

[384년] 봄 正月, …(중략)… 垂는 洛陽이 四面에서 적을 맞을 수 있으므로, 鄴를 취하여 그곳에 據하고자, 곧 병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갔다. 옛 扶餘王 餘蔚을 滎陽太守로 삼아, 昌黎 鮮卑 衛駒와 함께 각기 그 무리를 거느리고 垂에 향

48) 이정빈은 餘蔚을 비롯한 당시 5백여 명의 질자가 평소에도 도성과 왕궁의 숙위 업무에 종사하였고, 그러한 그들의 임무가 북문 지역 수비와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았다. 특히 散騎侍郎이라는 餘蔚의 관직으로 보아 그는 尙書의 奏事를 담당하며 국왕의 근시직으로 근무하였을 것이라 추정한다(이정빈, 「모용선 비 전연(前燕)의 부여 · 고구려 질자(質子)」, 92~94쪽).

복하였다. 垂가 滎陽에 이르자 群下가 尊號에 오를 것을 강하게 청하니, 垂는 곧 中宗의 故事에 의거하여 大將軍 大都督 燕王을 칭하고 承制하여 일을 행하니, 이를 일러 統府라 하였다. …(중략)… 餘蔚을 征東將軍 統府 左司馬 扶餘王에 책봉하고 …(하략)…<sup>49)</sup> (『資治通鑑』 卷105, 晉紀 27, 太元 9年 正月條)

사료 (바)-②

[392년] 가을 7월, 垂가 鄴으로 가서 태원왕 慕容楷를 冀州牧으로 삼고, 右光祿大夫 餘蔚을 左僕射로 삼았다.<sup>50)</sup> (『資治通鑑』 卷108, 晉紀 30, 太元 17年 7月條)

사료 (바)-③

[396년] 5월 辛亥 …(중략)… 扶餘王 (餘蔚을) 太傅로 삼았다.<sup>51)</sup> (『資治通鑑』 卷108, 晉紀 30, 太元 21年 5月條)

사료 (바)-①을 보면 餘蔚은 384년 慕容垂가 다시 나라를 재건하여 後燕을 건국하는 데에도 가담하면서 滎陽太守에 임명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 昌黎 일대에서 활동하던 鮮卑의 수장 衛駒도 餘蔚과 함께 무리를 이끌고 투항하였다고 전한다. 이렇게 後燕 慕容垂 막하에 가담한 餘蔚은 다시 征東將軍 統府 左司馬 扶餘王에 봉해진다. 그러나 이미 같은 사료에 餘蔚을 ‘옛 부여왕(故扶餘王)’이라고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384년 後燕의 건

49) 『資治通鑑』 卷105, 晉紀 27, 太元 9年(384) 正月條, “春正月 …(中略)… 垂以洛陽四面受敵, 欲取鄴而據之, 乃引兵而東. 故扶餘王餘蔚為滎陽太守, 及昌黎鮮卑衛駒各帥其眾降垂. 垂至滎陽, 群下固請上尊號, 垂乃依晉中宗故事, 稱大將軍, 大都督, 燕王, 承製行事, 謂之統府. …(中略)… 餘蔚為征東將軍, 統府左司馬, 封扶餘王. …(下略)…”

50) 『資治通鑑』 卷108, 晉紀 30, 太元 17年 7月條, “秋七月, 垂如鄴, 以太原王楷為冀州牧, 右光祿大夫餘蔚為左僕射.”

51) 『資治通鑑』 卷108, 晉紀 30, 太元 21年 5月條, “五月, 辛亥 …(中略)… 夫餘王為太傅.”

국 과정에 가담하기에 앞서 그는 이미 前燕 혹은 前秦으로부터 부여왕에 책봉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혹은 前燕이 멸망한 뒤 부여로 돌아가 왕위를 이었을 가능성도 있겠다. 때문에 後燕 또한 그러한 여울의 지위를 인정하고 '扶餘王'에 다시 책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餘蔚이 慕容垂에 투항할 당시 함께 행동한 昌黎 鮮卑 衛駒의 존재도 주목된다. 餘蔚이 자신을 따르던 무리와 함께 慕容垂의 막하에 투항할 때, 衛駒 휘하의 鮮卑 집단도 餘蔚과 행동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보아 餘蔚은 前燕이 멸망한 뒤에도 여전히 요서 지역의 선비 집단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農安 일대 부여 세력의 동향과 관련하여 주의를 끄는 대목이다.

한편, 사료 (바)-②에서 보듯 384년 後燕 慕容垂 막하에 가담한 餘蔚은 征東將軍 統府 左司馬 扶餘王에 봉해진 뒤로, 右光祿大夫에 올랐다가 392년에는 左僕射에 오르고, 사료 (바)-③의 시점인 396년에는 扶餘王의 신분을 유지한 채 太傅에 오르는 등 後燕 정계에서 출세가도를 달렸다. 胡三省은 사료 (바)-③에 주를 달아 “餘蔚은 扶餘王子이다. 燕王 皝이 扶餘를 깨뜨리고 그를 붙잡았는데, 燕이 망하자 秦에 들어갔고, 秦이 혼란하자 다시 燕에 돌아오니, 燕主가 마침내 扶餘王에 봉하였다(餘蔚, 夫餘王子也, 燕王皝破夫餘得之, 燕亡, 入秦, 秦亂, 復歸燕, 燕主垂封爲扶餘王).”고 적고 있다.

#### 사료 (사)-①

[384년 正月] 이에 農은 列人으로 말을 몰아 그곳에 사는 백성을 士卒로 삼고, 뽕나무와 느릅나무를 베어 무기를 만들고 치마를 찢어서 깃발을 만들고 조추로 하여금 屠各 畢聰에게 유세하게 하였다. 畢聰은 屠各 卜勝, 張延, 李白, 郭超 및 東夷 餘和, 勅勒과 易陽 吳丸 劉大와 더불어 각각 部眾 수천 명을 거느리고 그에게 왔다. 農은 임시로 張驥에게 輔國將軍을, 劉大에게 安遠將軍을 魯利에게 建威將軍을 내렸다.<sup>52)</sup> (『資治通鑑』 卷105, 晉紀 27, 太元 9年 正月條)



## 사료 (사)-②

[396년] 봄 正月, …(중략)… 燕主 垂가 定東將軍 平規를 파견하여 冀州에서 군사를 징발하였다. 2월에 (平)規가 博陵, 武邑, 長樂 3군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魯口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중략)… 垂가 鎮東將軍 餘崇을 보내어 平規를 공격하도록 하였으나, 餘崇이 패하여 죽었다.<sup>53)</sup> (『資治通鑑』 卷108, 晉紀 30, 太元 21年 正月·2月條)

한편, 사료 (사)-①에서는 餘蔚이 慕容垂 막하에 가담한 384년 무렵 慕容垂의 아들 慕容農과 함께 행동하는 인물 중에 東夷 餘和라는 인물이 보이는데, ‘餘’씨 성을 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역시 부여계 인물로 생각된다. 그리고 扶餘王 餘蔚이 後燕에서 太傅의 관직을 받던 396년에는 慕容垂의 막하에서 활동한 부여계 인사로 餘嵩이란 인물도 등장해 눈길을 끈다[사료 (사)-②]. 그는 396년 後燕의 定東將軍 平規가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되었다가 전사하였다고 하는데, ‘餘’씨 성을 가진 부여 왕실 일족으로 餘蔚·餘和와 함께 後燕의 정계에서 활동한 인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여기에 일일이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밖에도 後燕 정계에서 활동한 부여계 인물로는 餘嵩의 아들 餘崇과 399년 後燕 정계에서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주살 당한 餘超라는 인물도 확인되고 있다.<sup>54)</sup>

52) 『資治通鑑』 卷105, 晉紀 27, 太元 9年 正月條, “於是農驅列人, 居民為士卒, 斬桑榆為兵, 裂袍裳為旗, 使趙秋說屠各畢聰. 聰與屠各卜勝, 張延, 李白, 郭超及東夷餘和, 敕勒, 易陽烏桓劉大各帥部眾數千赴之. 農假張驥輔國將軍, 劉大安遠將軍, 魯利建威將軍.”

53) 『資治通鑑』 卷108, 晉紀 30, 太元 21年 正月·2月條, “春正月, …(중략)… 燕主垂遣 征東將軍平規發兵冀州. 二月, 規以博陵, 武邑, 長樂三郡兵反於魯口, …(中略)… 垂遣 鎮東將軍餘嵩擊規, 嵩敗死.”

54) 당시 中原 지역에서 활동한 부여계 인물들에 대해서는 여호규, 「百濟의 遼西進出說 再檢討」, 19쪽 표1과 이정빈, 「모용선비 전연(前燕)의 부여·고구려 질자(質子)」, 103쪽 표1에 잘 정리되어 있다.

사료 (아)-①

[385년 7월] 燕 建節將軍 餘巖이 반란을 일으키고 武邑에서 북쪽으로 가서 幽州로 향하였다. 燕王 垂가 말을 달려 사자를 보내어 유주의 平規에게 칙령을 내려 말하기를, “군계 지키고 싸우지 말며, 내가 丁零을 격파하고 몸소 그들을 토벌할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하였다. 平規가 나와 싸웠는데, 餘巖에게 패하였다. 餘巖이 薊에 들어가서 천여 호를 약탈하고 떠나 마침내 劄支를 점거하였다.<sup>55)</sup> (『資治通鑑』 卷106, 晉紀 28, 太元 10年 7月條)

사료 (아)-②

[385년 8월] 燕王 垂가 魯王 [慕容]和를 南中郎將에 임명하고, 鄴에 주둔하여 지키게 하였다. 慕容農을 파견하여 蠡螭塞를 나와서 凡城을 거쳐 龍城으로 달려가, 군사를 모아서 餘巖을 치도록 하고 …(하략)…<sup>56)</sup> (『資治通鑑』 卷106, 晉紀 28, 太元 10年 8月條)

사료 (아)-③

(385년 11월) 慕容農이 龍城에 이르러 병사와 말을 10여 일간 쉬게 했다. …(중략)… 農이 말하길, “내가 올 때 속히 온 것은 餘巖이 산을 넘어 노략질하며 흠치면서 백성들을 시끄럽게 만들 것을 걱정했을 뿐이다. (餘巖의) 재주가 사람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굶주린 아이를 속여 피며 까마귀를 모아서 무리를 만든 것 같아서 기강이 없으니, 나는 이미 그들의 목구멍을 눌러 놓고 있어서 오래되면 떨어지고 흠어질 테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중략)…”라고 하였다.

55) 『資治通鑑』 卷106, 晉紀 28, 太元 10年 7月條, “燕建節將軍餘巖叛, 自武邑北趣幽州. 燕王垂馳使救幽州將平規曰, 固守勿戰, 俟吾破丁零自討之. 規出戰, 爲巖所敗. 巖入薊, 掠千餘戶而去, 遂據劄支.”

56) 『資治通鑑』 卷106, 晉紀 28, 太元 10年 8月條, “燕王垂以魯王和爲南中郎將, 鎮鄴. 遣慕容農出蠡螭塞, 歷凡城, 趣龍城, 會兵討餘巖, …(下略)…”

잠시 후 農이 보기 3만을 거느리고 劄支에 도착하니, 여암의 무리가 떨리고 놀라서 차츰 성을 넘어 農에게 귀부하였다. 여암이 제책이 궁하게 되자 나와서 항복하니 農이 그의 머리를 베었다. 나아가 고구려를 쳐서 요동과 현토 두 군을 회복하였다.<sup>57)</sup> (『資治通鑑』 卷106, 晉紀 28, 太元 10年 11月條)

이처럼 餘蔚, 餘和, 餘嵩 등이 후연 정계에서 활약할 무렵 이들과 다른 행보를 보인 이도 있다. 위의 사료 (아)-①·②·③에 등장하는 餘巖은 385년 後燕에서 建節將軍의 관직에 있었던 인물로 ‘餘’씨 성을 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부여계 인물로 생각된다. 그는 385년 7월에 後燕에 반기를 들고 幽州로 향하였다가 오늘날 북경시 서쪽 遷安市 일대인 劄支를 점거하였고, 같은 해 11월 後燕의 군대에 의해 토벌되기 전까지 이곳을 거점으로 요서군과 북평군을 아울렀다고 한다. 때문에 이와 같은 餘巖의 사적을 ‘백제의 요서진출설’과 관련시켜 접근한 연구도 제시된 바 있다.<sup>58)</sup>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점은 당시 後燕에 반기를 들었던 餘巖이 부여 본국과 접촉하였던 정황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餘巖은 後燕에 의해 토벌되기 전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요서 지역에서 제법 큰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는데, 아마도 그의 막하에는 그를 따르는 부여계 인물들도 다수 포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餘巖이 다가오는 後燕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부여 본국과의 연결을 도모할 법도 한데, 그러한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이는 당시 여울을 비롯한 부여 왕실 인원 중 많은 이들이 후연 정계에서 활동하면서 부여 본국도 여전히 親

57) 『資治通鑑』 卷106, 晉紀 28, 太元 10年 11月條, “慕容農至龍城, 休士馬十餘日。…(中略)… 農曰, 吾來速者, 恐餘巖過山鈔盜, 侵擾良民耳。巖才不逾人, 誑誘饑兒, 鳥集為群, 非有綱紀。吾已扼其喉, 久將離散, 無能為也。…(中略)… 頃之, 農將步騎三萬至劄支, 巖眾震駭, 稍稍逾城歸農。巖計窮出降, 農斬之。進擊高句麗, 復遼東, 玄菟二郡。”

58) 여호규, 「百濟의 遼西進出說 再檢討」, 19~22쪽.

후연적 성향을 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당시까지도 부여 왕실은 후연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고 나라의 명맥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부여는 후연에 반기를 들었던 餘麴을 지원할 형편이 못 되었고, 餘麴 또한 부여 본국과의 연대를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의 단편적인 사료를 통해 부여의 동향을 세세히 파악하기는 역부족이지만, 餘麴 등 부여계 인물들의 사적을 통해 4세기 후반 희미하게나마 명맥을 이어가던 부여 왕실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었다. 특히 餘麴은 비록 質子 신분이었지만 前燕 정계에서 散騎侍郎의 관직을 제수받으며 일정 정도의 사회적 위치를 보장받았고, 前燕 멸망 시점에는 鄴城에 체류하던 각국의 質子 집단을 주도하여 前秦의 군대가 鄴城을 함락시키는 데에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또한 後燕의 건국 과정에도 가담하여 夫餘王에 봉해지는 등 부여 왕족 출신을 배경으로 하여 前燕과 前秦, 後燕의 정계에서 활동을 지속해 나갔다.

그렇다면 餘麴이 이처럼 증원에 체류하며 활동을 전개해나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前燕 멸망 이후 後燕의 건국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당시에 餘麴은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는 前燕과 前秦, 後燕으로 이어지는 세력 변동 속에서 줄곧 증원왕조에서 활약하였던 것이다. 특히 餘麴이 慕容垂에 투항할 당시 昌黎의 鮮卑 집단이 함께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前燕이 멸망한 뒤에도 그는 요서 지역의 선비 집단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당시 餘麴이 이미 부여왕의 지위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餘麴의 동향은 곧 부여 왕실의 대외정책 기조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餘麴로 대표되는 당시 부여 왕실은 동쪽으로부터 밀려오는 고구려의 압박을 견제하고 그 왕실을 보존하기 위해 여전히 鮮卑 세력과 연대를 도모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즉 당시 餘麴을 비롯한 부여

왕실 일족은 요서 지역의 鮮卑 집단과 연대를 통해 고구려를 견제하고 왕실의 안위를 도모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사료 상의 제약으로 이 이상의 고찰은 어렵겠지만, 당시 餘蔚을 비롯한 부여계 인물들이 증원의 정계에서 활동한 배경에는 農安縣 일대에 존속하던 부여 세력의 의지가 일정 부분 작용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384년 모용선비 세력에 의해 다시 後燕이 건국되자 부여 왕실은 餘蔚을 매개로 後燕과도 긴밀한 관계를 이어나갔을 것이다. 양자의 관계는 407년 後燕이 멸망하기 전까지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後燕에 이어 등장한 北燕과 부여의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北燕 정권 안에서 활동한 부여계 인물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後燕의 몰락과 함께 곧바로 高句麗가 부여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던 것으로 추측되며, 당시 성세를 자랑했던 고구려는 곧 부여 왕실을 臣屬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초까지 부여를 종속시키고 있던 前燕과 後燕이 차례로 무너지자, 부여는 곧 고구려의 영향력 하에 귀속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는 5세기 중반까지 여전히 왕실의 명맥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사료 (자)

(457년) 12월 …(중략)… 이달에 于闐·扶餘 등 50여국이 각각 사신을 보내 朝獻하였다.<sup>59)</sup>

(『魏書』 卷5, 帝紀 5, 高宗紀 太安 3年 12月條)

59) 『魏書』 卷5, 帝紀 5, 高宗紀 太安 3年 12月條, “十有二月, …(中略)… 是月, 于闐, 扶餘等五十餘國各遣使朝獻.”

위의 사료에서 보듯 457년 부여는 北魏에 조공하며 오랜만에 국제무대에 얼굴을 비추었다. 하지만 이 기사를 끝으로 부여는 더 이상 중국 측 문헌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여의 마지막 순간은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료 (차)-①

3년(494) 정월, 魏에 朝貢하였다. 2월에 扶餘王과 그 妻子가 나라를 들어 항복하였다.<sup>60)</sup>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 7, 文咨明王 3年條)

사료 (차)-②

正始 연간(504~508)에 世宗이 東堂에서 그 사신 芮悉弗을 引見하니, [芮]悉弗이 전언하기를, “高麗의 이어지는 정성은 하늘에 닿고, 여러 대에 걸쳐 진실로 성실하여, 땅에서 나는 [모든] 산물이 공물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황금은 부여에서 나고, 珮는 涉羅에서 생산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여는 勿吉에게 쫓겨났고, 涉羅는 백제에게 병합되어, [고려] 國王인 臣 雲은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 도리를 생각하여, [부여와 涉羅 백성들을] [고려의] 경내로 옮겼습니다. 두 가지 물품이 王府에 오르지 않은 것은 사실 두 도적들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sup>61)</sup> (『魏書』 卷100, 列傳 88, 高句麗條)

사료 (차)-①에서 보듯이 494년 왕실이 고구려에 항복함으로써 부여는

60)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 7, 文咨明王 3年條, “三年, 春正月, 遣使入魏朝貢. 二月, 扶餘王及妻孥, 以國來降.”

61) 『魏書』 卷100, 列傳 88, 高句麗條, “正始中, 世宗於東堂引見其使芮悉弗, 悉弗進曰, 高麗係誠天極, 累葉純誠, 地產土毛, 無愆王貢, 但黃金出自夫餘, 珮則涉羅所產. 今夫餘爲勿吉所逐, 涉羅爲百濟所并, 國王臣雲惟繼絕之義, 悉遷于境內. 二品所以不登王府, 實兩賊是爲.”

그 지나간 역사의 종막을 고하였다. 물론 부여의 멸망 시점을 전연의 침공을 받은 346년으로 보고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의 이 기록도 잘못된 기사로 보는 의견이 있지만,<sup>62)</sup> 앞서 사료 (자)에서처럼 457년 무렵 부여가 北魏에 조공하였다는 기사를 두고 보면, 분명 5세기 중반까지도 부여는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료 (차)-②에서 “지금 부여는 勿吉에게 쫓겨났고, 涉羅는 백제에게 병합되어, [고려] 國王인 臣雲은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 도리를 생각하여, [부여와 섭라 백성들을] [고려의] 경내로 옮겼습니다.”라는 언급도 사료 (차)-①의 부여 내항 기사를 신빙할 수 있게 해준다.

고구려의 사신 芮悉弗이 北魏를 찾은 사료 (차)-②의 구체적 시점은 『三國史記』에 따르면 文咨明王 13년(504)이라 한다.<sup>63)</sup>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부여는 494년 멸망을 맞이하기 전까지 고구려에 황금을 공물로 바치면서 신하국의 위치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이로보아 5세기 무렵 부여는 後燕의 멸망과 함께 그 속박에서 벗어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부여가 존속하던 農安縣 일대로 고구려가 세력을 뻗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 사료 (카)-①

太和 3년(479) 高句麗가 몰래 蠕蠕과 모의하여 地豆于를 취하여 이를 나누고자 하였다. 거란이 그 (고구려의) 침략을 두려워하여, 그 莫弗賀 勿于가 그部落의 수레 3千乘과 무리 萬餘口를 거느리고 雜畜들을 몰아 옮기며 內附할 것을

62)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修訂版)』, 博英社, 1985, 222쪽; 『譯註 三國史記(개정판)』, 上, 435쪽 각주 4)번.

63)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 7, 文咨明王 13年, “夏四月, 遣使入魏朝貢, 世宗引見其使 芮悉弗於東堂. 悉弗進曰, 小國係誠天極, 累葉純誠, 地產土毛, 無愆王貢. 但黃金出自扶餘, 珂則涉羅所產, 扶餘爲勿吉所逐, 涉羅爲百濟所并, 二品所以不登王府, 實兩賊是爲.”

청하고 白狼水의 동편에 머물렀다.<sup>64)</sup> (『魏書』 卷100, 列傳 88, 契丹條)

사료 (카)-②

後魏 시기에 이르러 高麗의 침략을 당하자, (거란의) 部落 萬餘口가 內附하여 와서 白貊河에 머물렀다.<sup>65)</sup> (『隋書』 卷84, 列傳 49, 契丹·室韋條)

위의 사료 (카)-①에서처럼 고구려는 479년 柔然(蠕蠕)과 함께 거란의 일파인 地豆于에 대한 분점을 기도하였다.<sup>66)</sup> 地豆于是 오늘날 중국 內蒙古自治區 동부 大興安嶺山脈 일대에 거주하던 유목 부족으로 당시 그들의 東界는 長春·農安 일대의 송화강 유역과 맞닿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67)</sup> 따라서 고구려와 柔然의 地豆于 분할 시도는 고구려가 農安縣 일대를 장악하지 않고서는 도모하기 어려운 작전이었다.<sup>68)</sup> 즉 후연이 멸망한 407년 이후 479년 이전 어느 시점에 이르던 고구려는 부여를 세력권 내에 종속시키고 農安 일대에까지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sup>69)</sup>

하지만 이것이 고구려에 대한 부여의 완벽한 복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

64) 『魏書』 卷100, 列傳 88, 契丹條, “太和三年, 高句麗竊與蠕蠕謀, 欲取地豆于以分之. 契丹懼其侵軼, 其莫弗賀勿于率其部落車三千乘, 衆萬餘口, 驅徙雜畜, 求入內附, 止於白狼水東.”

65) 『隋書』 卷84, 列傳 49, 契丹·室韋條, “當後魏時, 為高麗所侵, 部落萬餘口求內附, 止於白貊河.”

66) 柔然과 高句麗의 地豆于 분할 시도와 관련하여서는 박경철, 「高句麗의 東蒙古經略」, 『白山學報』 71, 2005, 137~147쪽에서 자세히 검토된 바 있다.

67) 白鳥庫吉, 「東胡民族考」, 『史學雜誌』 21-24, 1910-1913 ; 『白鳥庫吉全集』 4, 岩波書店, 1970, 185쪽.

68) 津田左右吉, 「勿吉考」,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 1915 ; 『津田左右吉全集』 12, 岩波書店, 1964, 24쪽.

69) 노태돈, 「扶餘國의 境域과 그 變遷」 ; 『고구려사 연구』, 523쪽에서는 고구려·柔然의 地豆于 분할에 대해 ‘고구려가 農安 일대를 세력권 아래 복속시킨 뒤 이를 발판으로 서북쪽 방면으로의 팽창을 기도한 결과’로 이해한 바 있다.



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확인하였듯이 당시 부여는 오히려 고구려에 황금을 공물로 바치는 조공국으로 위치함으로써 고구려의 세력권 내에서 다시 왕실의 안위와 존속을 보장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앞서 사료(자)에서처럼 457년에는 북위에 조공하며 독자적인 외교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힘겹게 유지되던 왕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북방으로부터 들이닥쳤다.

#### 사료(타)

지난 延興 연간에 사신 乙力支를 보내 朝獻하였다. 太和 초에 또 말 5백 필을 바쳤다. …(중략)… 스스로 말하길, ‘그 나라가 앞서 고구려 열 부락을 공파하고, 은밀히 백제와 함께 모의하여 물길을 따라 힘을 합쳐 고구려를 취하려 하는데, 을력지를 보내 대국을 받들고, 그 가부를 청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조칙을 내리기를 ‘삼국이 같이 번으로 귀부하였으니, 마땅히 함께 화합하고, 서로 침략하는 우환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乙力支는 곧 돌아갔다.<sup>70)</sup> (『魏書』 卷100, 列傳 88, 勿吉國條)

위의 사료(타)에서 물길 사신 乙力支가 北魏에 사신으로 간 ‘延興 연간’의 구체적인 시점은 延興(475) 5년 10월로, 고구려 장수왕 63년의 일이다.<sup>71)</sup> 여기서 乙力支의 전언에 따르면 475년 이전 어느 시점에 물길이 고구려의 열 부락을 공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제와 힘을 합쳐 고구려를 합공할 계획을 모의하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475년은 고구려가 백제 王都

70) 『魏書』 卷100, 列傳 88, 勿吉國條, “去延興中, 遣使乙力支朝獻. 太和初, 又貢馬五百匹. …(中略)… 自云其國先破高句麗十落, 密共百濟謀從水道并力取高句麗, 遣乙力支奉使大國, 請其可否. 詔敕三國同是藩附, 宜共和順, 勿相侵擾. 乙力支乃還.”

71) 『冊府元龜』 卷969, 外臣部 朝貢 2, “孝文延興五年八月, 高麗, 吐谷渾, 地豆于諸國, 十月, 蠕蠕國并遣使朝獻, 勿吉國遣使朝獻.”

한성을 공략하던 해였음을 고려할 때, 고구려의 관심이 남쪽으로 쏠렸던 상황 속에서 勿吉의 사신이 北魏로 파견된 것은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72)</sup>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5세기가 후반에 접어들 무렵 이미 물길은 북류 송화강 일대로 남하하여 고구려의 북변을 침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물길의 세력 확장은 부여에게 있어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물길의 성장세에 대해 관련 연구에서는 黑龍江省 三江平原 일대, 즉 七臺河市·雙鴨山市·佳木斯市 일원에 거주하던 물길이 3세기 후반부터 남하를 시작하여 4세기 중반에는 이미 부여의 동쪽 지역을, 5세기 말에는 부여의 중심지였던 북류 松花江 유역을 차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73)</sup> 결국 부여 왕실은 이러한 물길의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494년 끝내 고구려에 완전히 귀부하게 되었던 것이다. 700여 년을 이어온 왕국의 마지막이었다.

#### IV. 맺음말

이 글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부여의 쇠퇴·멸망 과정과 4세기 후반 이후 중원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부여 왕실 일족

72) 김락기, 『고구려의 東北方 境域과 勿吉 靺鞨』, 42쪽.

73) 이종수, 「三江平原地域초기철기문화의 특징과 사용집단 분석」, 『고구려발해연구』 41, 2011, 30쪽. 여기서 이종수는 본래 부여의 영역이었던 吉林省 九臺市 인근의 上河灣鎮 보루성 유적 등을 근거로 黑龍江성의 七臺河市·雙鴨山市·佳木斯市 일원에 살고 있던 물길이 3세기 후반에 남하하여 4세기 중반에는 부여의 동쪽 지역을, 그리고 5세기말에는 결국 부여를 멸망시키고 부여의 중심지였던 북류 송화강 유역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의 동향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특히 부여 후기 역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부분, 즉 『資治通鑑』에 ‘百濟’의 공격을 받고 ‘西徙近燕’ 하였다는 4세기 중반 부여의 역사상에 접근하고 이와 함께 부여 후기 왕성의 위치 문제를 재검토하였다. 그리고 346년 前燕의 침공을 받아 항복한 이후 중원 지역에서 그 활동상이 확인되는 부여 왕실 일족의 동향을 실마리 삼아 4세기 후반 부여국의 존속 여부를 탐색하는 한편, 이후 5세기 말 왕국의 최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실 4세기 이후로 부여의 역사를 전하는 문헌기록이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에서 부여 후기 역사를 복원한다는 것은 매우 지난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본고의 논의 또한 부여 후기 역사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 기초적 정리 이상의 성과를 얻지 못했음을 자인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록의 공백을 메우고 부여 후기의 역사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앞으로의 고고 자료 확보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는데, 특히 부여 후기 중심지에 대한 고고학적 성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향후 고고 연구 성과의 보완을 기대하면서 본문의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부족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85년 모용선비의 기습적인 침공에 나라가 일시 붕괴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던 부여는 그 이후로 쇠퇴일로 역사를 걸었다. 330년대 무렵 건국의 땅이었던 吉林市 일대를 고구려에게 빼앗긴 부여는 그 서북쪽의 農安縣 부근으로 옮겨 갔다. 기록 상에 확인되는 ‘西徙近燕’ 구절의 의미는 4세기 전반 고구려의 공세에 밀려 農安 일대로 도읍을 옮겼던 부여의 상황을 말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렇게 農安으로 옮겨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346년 前燕의 침공을 받으면서 부여는 나라의 독자적 면모를 상실한 채 前燕에 종속되었다.

이후로 부여국의 역사는 더 이상 기록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때를 기점으로 부여 왕실 일족의 행적이 중원왕조의 기록을

통해 단편적으로나마 확인되기 시작한다. 특히 餘蔚을 위시로 한 일군의 부여 왕실 세력이 前燕과 前秦 및 後燕의 정계에서 활약하였음이 사료 상에 확인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이들의 활동상을 통해 당시 중원왕조의 영향력 아래에 놓인 채 그 미맥을 이어갔던 부여국의 존재를 추측해 보았다. 이후 부여는 後燕이 멸망하는 5세기 초부터 다시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에서 5세기 말까지 근근이 자신들의 역사를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세기 말 북방으로부터 남하하는 勿吉의 압박을 극복하지 못하고 494년 왕실이 고구려에 투항함으로써 부여의 역사는 결국 종막을 맞이하게 되었다.

(2020.07.25. 투고 / 2020.08.07. 심사완료 / 2020.08.14. 게재확정)

[Abstract]

The Process of Decline and Fall of Buyeo and the Trend of  
Royal Family

Lee, Seung-ho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of the decline and fall of Buyeo, which has not been specifically reviewed by the academic circles, and the trend of refugees of Buyeo after the late 4th century. In particular, intensive discussion about the trends of the royal family of Buyeo which had presence in the Central Plain after the invasion of Former Yan(前燕) in 346 was conducted, while tracking the location of the royal castle in the late Buyeo period which has been an issue.

Buyeo, facing the situation of the temporary collapse due to the sudden invasion of Murong-Xianbei(慕容鮮卑) in 285, was on the road to decline since then. Buyeo was deprived of Jilin City(吉林市), which was the land of the founding, by Goguryeo in the 330s, and moved the royal city to Nongan County(農安縣) in the northwest. The royal castle of late Buyeo, which is confirmed on the record, is estimated to be in Nongan County, Jilin(吉林省) of China. However, shortly after moving to Naongan, Buyeo became completely subordinate to Former Yan after being invaded by Former Yan in 346.

However, it has been confirmed in the historical records that the royal family of Buyeo played active role in politics of Former Yan, Former Qin(前秦) and Later Yan(後燕), starting with Yeoul(餘蔚) since then.

Through their activities, it is possible to confirm that the Buyeoguk(夫餘國) barely managed to exist under the influence of the Central Plain dynasties at that time. It is also confirmed that Buyeo was restricted again by the influence of Goguryeo from the first half of the 5th century when Later Yan fell, and managed to remain in history until the end of the 5th century. However, in 498, Buyeo failed to overcome the pressure of Wuji(勿吉) advancing southward, and eventually the royal family surrendered to Goguryeo, and the history of Buyeo reached its end.

□ Keyword

Buyeo, Downfall of Buyeo, Yeowool(餘蔚), Moved the Royal City(西徙近燕), Later Royal Castle of Buyeo, Royal Family of Buyeo

## [참고문헌]

## 1. 국문

- 김라기, 『고구려의 東北方 境域과 勿吉 靺鞨』, 경인문화사, 2013.
- 김육불 저 · 동북아역사재단 역, 『김육불의 東北通史』 上, 동북아역사재단, 2007.
-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 방학봉, 『발해경제 및 주요 교통로 연구』, 신성출판사, 2005.
- 송호정, 『처음 읽는 부여사』, 사계절, 2015.
-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修訂版)』, 博英社, 1985.
- 李丙燾, 『譯註 三國史記(개정판)』 上, 을유문화사, 1994.
- 이인철, 『고구려의 대외정복 연구』, 백산자료원, 2000.
- 정원철, 『고구려 산성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7.
- 鄭寅普, 『朝鮮史研究』 上, 서울신문사, 1947.
- 池培善, 『中世東北亞史研究 -慕容王國史-』, 일조각, 1986.
- 김병룡, 「후부여의 형성과 그 역사적 변천」, 『조선고대 및 중세초기사 연구』, 백산자료원, 1992
- 노태돈, 「扶餘國의 境域과 그 變遷」, 『國史館論叢』 4, 1989.
- 박경철, 「扶餘史 展開에 關한 再認識 試論」, 『백산학보』 40, 1992.
- 박경철, 「부여사의 전개와 지배구조」, 『한국사』 2, 한길사, 1994.
- 박경철, 「高句麗의 東蒙古經略」, 『白山學報』 71, 2005.
- 송호정, 「Ⅲ. 부여」,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97.
- 여효규,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 『한국사연구』 91, 1995.
- 여효규,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36, 2000.

여호규, 「百濟의 遼西進出說 再檢討」, 『진단학보』 91, 2001.

윤용구, 「3세기 이전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한국고대사연구』 14, 1998.

이성제, 「高句麗 千里長城에 대한 기초적 검토 -장성의 형태와 성격 논의를 중심으로-」, 『영남학』 25, 2014.

이승호, 「3세기 후반 「晉高句麗率善」印과 高句麗의 對西晉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67, 2012.

이승호, 「3세기 挹婁의 이탈과 夫餘의 쇠퇴」, 『동국사학』 64, 2018.

이승호, 「夫餘 政治史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이승호, 「부여의 국가구조와 四出道」, 『한국고대사연구』 96, 2019.

이정빈, 「모용선비 전연(前燕)의 부여·고구려 질자(質子)」, 『동북아역사논총』 57, 2017.

이종수, 「三江平原地域 초기철기문화의 특징과 사용집단 분석」, 『고구려발해연구』 41, 2011.

## 2. 中文

金毓黻, 『東北通史』 上編, 社會科學戰線雜誌社, 1980.

譚其驤 主編, 『中國歷史地圖集』(釋文彙編 東北卷),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88.

羅福頤 主編·故宮博物院研究室 璽印組編, 『秦漢南北朝官印徵存』, 文物出版社, 1987.

範恩實, 『夫餘興亡史』, 社會科學出版社, 2013.

孫進己·馮永謙 主編, 『東北歷史地理』 2, 黑龍江人民出版社, 1989.

楊軍, 『夫餘史研究』, 蘭州大學出版社, 2011.

王綿厚,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2002.



- 李德山·欒凡,『中國東北古民族發展史』,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3.
- 趙紅梅,『夫餘與玄菟郡關係研究』,香港亞洲出版社,2009.
- 武國勛,「夫餘王城新考 -前期夫餘王城的發現-」,『黑龍江文物叢刊』1983-04.
- 孫正甲,「夫餘原流辯析」,『學習與探索』1984-06.
- 梁玉多,「簡析勿吉的對外擴張」,『北方文物』,2012-01.
- 王建群,「高句麗千里長城」,『博物館研究』1987-03.
- 王綿厚,「東北古代夫餘部的興衰及王城變遷」,『遼海文物學刊』1990-02.
- 李健才,「夫餘的疆域和王城」,『社會科學戰線』1982-04.
- 李健才,「東北地區中部的邊崗和延邊長城」,『遼海文物學刊』1987-01.
- 李健才,「三論北夫餘,東夫餘即夫餘的問題」,『社會科學戰線』2000-06.
- 李鍾洙,「夫餘文化研究」,吉林大學文學院 博士學位論文,2004.
- 張福有·孫仁傑·遲勇,「夫餘後期王城考兼說黃龍府」,『東北史地』2011-02.
- 張福有,「夫餘後期王城在遼源」,『東北史地』2015-06.
- 周向永,「西豐城子山山城始建年代再考」,『東北史地』2009-02.

### 3. 日文

- 東潮·田中俊明,『高句麗の歴史と遺跡』,中央公論社,1995.
- 武田幸男,『高句麗史と東アジア』,岩波書店,1989.
- 津田左右吉,『津田左右吉全集』12,岩波書店,1964.
- 白鳥庫吉,『白鳥庫吉全集』4,岩波書店,1970.
- 武田幸男,「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權」,『朝鮮學報』99·100,1971.
- 白鳥庫吉,「東胡民族考」,『史學雜誌』21-24,1910-1913.
- 津田左右吉,「勿吉考」,『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1,1915.

